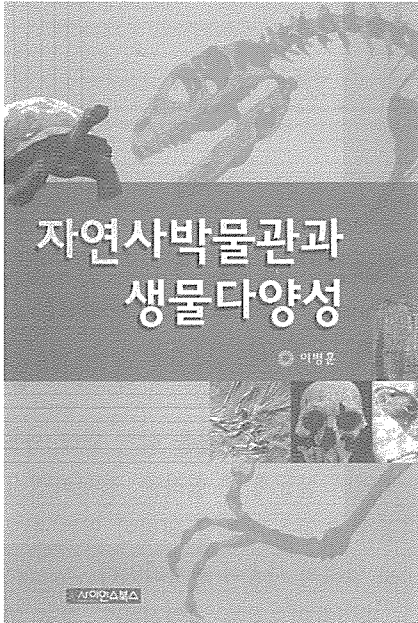


자연사박물관이 없는 나라



자연사박물관은 사라져가는 지구의 역사적 자료들을 수집하여 보존하며 자연에 관한 연구와 사회교육을 수행하는 중추적 장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다. 전 세계에 5천여개의 자연사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엔 한 곳도 없는 실정을 아책은 꼬집고 있다.

「자연사박물관과 생물다양성」

- 이병훈 지음
- 사이언스북스 2000 간

근세의 산업혁명 후 인구폭발, 도시화, 자원개발 등으로 열대 원시림은 원래의 2분의 1로 감소하였고 지구상 생물은 현재 매일 50~1백종씩 멸종하고 있어 21세기 말에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지구환경의 급속한 퇴화 속에서 인간의 미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환경으로서의 자연을 연구하여 보존할 뿐 아니라 지구의 지배자와 자연 파괴자로서의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알아내야 하는 과제가 따른다. 우리에게 자연과 인간에 관한 연구와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날 자연사박물관은 급속히 사라져 가는 지구의 역사적 자료들을 수집하여 보존하는 기본적 과제 외에도 이와 같이 자연에 관한 연구와 사회교육

을 수행하는 중추적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존, 연구, 교육 및 전시를 수행하는 시민대학으로서의 자연사박물관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황무지요 망각지대나 다름없다.

금수강산 자랑만 해서야...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금수강산을 자랑한다.

산하가 수려하고 경관이 아름다워 외국 관광객도 많이 찾아들고 따라서 나라의 자연을 잘 관리, 보존하여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상 한반도는 지형지세가 복잡하여 빼어난 산과 산림이 많고 그 사이에 하천과 습지, 호수 등이 발달하여 다른 멋진 대륙국가들에 비해 아기가하기 그지없다. 게다가 해안선

의 길이는 1만7천킬로미터에 이르고 서해안의 조간대는 세계 5대 갯벌에 들어갈 만큼 발달해 있어 한반도는 가히 다양한 생태계의 보고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생물만 해도 온대지방 국가로서는 높은 다양도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꽃식물이 약 3천3백종이 있는데 이 숫자는 영국의 두배가 넘고 독일에 비해 8백종이 많다. 곤충인 개미를 들어도 영국에는 불과 40여종이지만 한반도에는 1백20여종이니 3배가 넘는다.

결국 생태계의 종류로 보나 생물종수로 보아서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은 열대 나라들에 비해서는 적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북반구의 온대국가들에 비하면 훨씬 높아 가히 생물다양성 부국이라 할만 하다.

그럼에도 우리의 자연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관이 없는 것은 왜일까? 또 한반도에만 서식하는 생물들을 표본으로나마 모아둔 곳이 없지 않은가? 세계를 통틀어 그 나라의 생물과 광물 등 자연사표본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자연연구와 교육의 중심은 자연사박물관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사박물관이 전 세계에 약 5천개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엔 1천2백여개, 독일에 6백여개, 영국에 3백여개, 프랑스에 2백30여개, 캐나다와 러시아에 각각 2백여개, 일본에 1백50여개가 된다. 국민소득이 비교적 낮은 아르헨티나와 폴란드에도 각각 1백여개가 되며 동남아의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방글라데시에도 10여개씩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 1개 있으나 남한엔 단 한개도 없는 0으로 표기되어 있다. 사실상 국내에는 '자연사박물관'으로 운

영되는 곳이 10여개 있다. 그러나 규모와 운영면에서 영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우리가 것처럼 자랑하는 금수강산을 연구하는, 그래서 자연의 특성과 패턴을 알아내고 한반도 고유의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 중심기관으로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실로 국민과 후손에 대한 크나큰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올림픽을 치르고 세계 무역량 12위에 이르러 드디어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인데도 말이다. 그러나 한국은 OECD 29개 회원국 중에서도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없는 유일한 국가이며 전 세계의 국가들 가운데는 1백38번째의 자연사박물관 최빈국(最貧國)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는 그간 동식물조사와 환경모니터링에 필수적인 참조표본 시설이 없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생태계 조사와 연구는 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산으로 보고된 생물은 약 2만9천8백종이고 그 가운데 약 1백80종이 절멸위기종으로 알려져 있으나 극히 일부 조사된 생물에서 나온 숫자일 뿐이며 실제로 야생에 얼마가 멸종 과정에 있는지 모른다. 체계적인 정보와 자료의 축적이 없고 이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호랑이, 여우, 뚝부기 등은 멸종되었고 개구리 등 양서류의 절반이 사라졌다. 반달가슴곰, 파초일엽, 금강초롱 등이 절멸위기에 있는가 하면 미선나무 등도 마찬가지다. 민물고기 2백여종 가운데 50여종이 한국 고유종이지만 20여종이 이미 사라졌거나 멸종위기에 있다. 놀라운 것은 한국 고래의 식용작물 2만여 품종 가운데

74%가 1985년 이후 불과 10년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결국 한국의 자연생태계는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매듭이 듬성듬성한 거미줄이 되어 가고 있다.

한국에 자연연구의 중심기관이 없는데서 오는 피해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구 대한제국의 19세기 중엽부터 외국의 수집가, 의사, 군인, 생물학자들은 한국을 다녀가며 막대한 생물표본을 가져갔다. 그 때문에 한국산 생물종의 동물의 경우 한국 특산이 약 3천종으로 추산되지만 이들을 증명하는 '호적표본'들이 국내에는 겨우 5분의 1이 있고 나머지 약 2천4백종을 보려면 런던, 파리, 워싱턴, 뉴욕 그리고 일본에 가야 한다. 주목할만한 일은 해방 후 북한의 생물 역시 동유럽의 여러 나라가 1950년 후반부터 최근까지 20여차례 북한에 원정조사를 하여 막대한 수의 표본을 가져간 사실이다. 이렇게 해외로 반출된 생물의 표본은 동구권과 일본에 곤충만도 약 2백50만 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생물표본은 해외로 유출되고...

이처럼 우리의 생물종들은 국내에 보존됨이 없이 전 세계에 모두 흩어져 '국제고아'가 되어 있다. 그 원인은 한마디로 권위있는 자연사박물관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엔은 1992년에 환경개발회의를 열어 지구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나라의 자연 관리와 생물종 보존은 국민의 복지와 경제를 위해서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협약이라는 국제적 약속 이행차원에서 발전시켜나가지 않으면 안될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이

협약의 전문(前文)에는 모든 생물의 주권이 그 생물이 살고 있는 나라에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특히 그 경제적 귀속을 분명히 하고 있거니와 제 7조는 나라 생태계에 대한 명세조사(inventory)와 감시(monitoring)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 이행은 표본, 인력, 시설, 정보 따위의 하부구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이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루는 국가 연구기관이 없다는 점이 한국의 자연보존에서의 위기상황을 단적으로 웅변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참조표본과 그에 관한 시설 및 인력이 없는 생물의 분포, 전파, 쇠퇴경위, 멸종 등의 변동사항을 알아낼 수가 없고 자연사박물관의 설립과 발전 없이는 나라의 자연보존은 물론, 이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실질적 문제와 필요성 이외에도 자연사박물관에는 앞으로 더욱 긴박하게 전개될 환경과 바이오시대에 대비하여 이에 정통한 시민을 양성하고 특히 어린이에게는 체험과 상상의 현장을 제공하여 창의적 분위기와 계기를 마련해 주며 이에 따라 전 국민의 과학화를 촉진하는 촉매제의 임무가 주어지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 자연의 고유한 특성과 가치를 계발하지 않고 어떻게 국민의 정체성과 긍지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겠는가? 한 걸음 나아가 이것은 바로 한국의 과학문화에 독창성을 심어줄 수 있는 뿌리와 토양에 관한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기도 하다. ⑤7

李炳勳 <전북대 생물과학부 교수>